

해태 타이거즈 베스트



전 LG 감독
광주상고·연세대 졸
1985년 입단
173cm, 73kg
우투우타
1988년 0.313타율
406타수 127안타
13홈런 52타수
58도루
1천8백75만원
이순철 중견수



전 KIA 감독
경북고·건국대 졸
1982년 삼성 입단
1983년 해태 트레이드
178cm, 72kg
우투우타
1986년 0.256타율
375타수 96안타
3홈런 24타점 43도루
2천7백만원
서정환 유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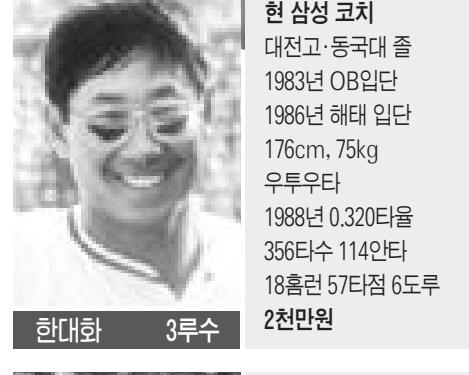
전 KIA 감독
군산상고·동국대 졸
1982년 입단
178cm, 80kg
우투우타
1988년 0.324타율
404타수 131안타
30홈런 89타점
16도루
3천5백90만원
김성한 1루수



현 극동대학교 교수
군산상고·연세대 졸
1982년 입단
177cm, 80kg
우투우타
1986년 0.300타율
407타수 122안타
21홈런 67타점
3도루
2천3백만원
김봉연 지명타자



현 KIA 수석코치
광주상고·영남대 졸
1982년 입단
178cm, 74kg
우투우타
1983년 0.350타율
311타수 109안타
11홈런 44타점
7도루
2천9백20만원
김종모 우익수



현 삼성 코치
대전고·동국대 졸
1983년 OB입단
1986년 해태 입단
176cm, 75kg
우투우타
1988년 0.320타율
356타수 114안타
18홈런 57타점 6도루
2천9백20만원
한대화 3루수



현 원광대 감독
군산상고·광주대 졸
1982년 입단
178cm, 78kg
우투우타
1983년 0.301타율
306타수 92안타
19홈런 45타점
10도루
2천3백만원
김준환 좌익수



전 히어로즈 코치
광주일고·성균관대 졸
1986년 입단
183cm, 95kg
우투우타
1988년 0.249타율
26홈런 58 타점
2도루
1천1백90만원
장재근 포수



현 KIA 2군 감독
광주일고·
동신전문대 졸
1982년 입단
178cm, 70kg
우투우타
1982년 0.259타율
282타수 73안타
11홈런 12타점 32도루
1천8백75만원
차영화 2루수



VS



KIA타이거즈 베스트

<개인 통산 최고 타율 및 성적 비교>



좌투좌타
175cm, 70kg
덕수정보고 졸
2004년 LG 입단
2005년 KIA 트레이드
2006년 0.318타율
485타수 151안타
1홈런 39타점
38도루
1억5천만원
이용규 중견수



우투우타
178cm, 73kg
광주일고·건국대 졸
1993년 입단
1994년 0.393타율
499타수 196안타
16홈런 77타점
84도루
2억원
이종범 우익수



좌투좌타
184cm, 87kg
충암고·줄
1996년 입단
2002년 0.343타율
481타수 165안타
19홈런 74타점
7도루
5억5천만원
장성호 1루수



좌투좌타
196cm, 109kg
광주일고·고려대
2007년 해외선수
특별 지명 KIA 입단
2007년 0.337타율
199타수 67안타
7홈런 46타점
3도루
2억원
최희섭 지명타자



우투우타
182cm, 95kg
신일고·단국대 졸
2008년 입단
2008년 0.295타율
200타수 59안타
6홈런 30타점
1도루
3천8백만원
나지완 좌익수



우투우타
183cm, 85kg
광주일고·연세대 졸
2002년 입단
2007년 0.338타율
453타수 153안타
2홈런 48타점
4도루
1억원
이현근 3루수



우투우타
180cm, 92kg
광주일고·고려대 졸
2000년 입단
2003년 0.279타율
423타수 118안타
7홈런 46타점
3도루
1억5천만원
김성훈 포수



우투우타
180cm, 80kg
광주일고·고려대 졸
1996년 입단
2002년 0.287타율
527타수 151안타
8홈런 53타점
50도루
1억2천만원
김종국 2루수

해태맨 정신력 UP

KIA맨 기술력 UP

'V9' 선배들 명성, 후배들 'V10' 잇는다

올해로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27년.

1982년 해태로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디뎠던 태이거즈는 2001년 KIA로 뉴니플을 갈아입으며 '야구명가'의 전통을 잊고 있다. 9차례의 우승에 빛나는 KIA 태이거즈는 그동안 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프로야구 중심에 서 있었다.

출범 다음해인 1983년 처음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태이거즈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 시리즈 4연패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다. 이후 1991.93.96.97년 4차례 우승의 기쁨을 선사한 태이거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태이거즈의 가장 화려했던 1980년대 선동열, 장재근, 김성한, 한대화, 이순철 등 유격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탄생했다. 프로 원년인 1982년부터 1989년까지 8년 동안 태이거즈맨들의 품에 안긴 황금장갑은 23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오리 궁뎅이' 김성한은 각각 두 차례 최우수 선수에 등극했다. 태이거즈의 유일한 신인왕(이순철)도 1985년에 탄생했다.

새 옷을 갈아입은 2000년대 들어 탄생한 태이거즈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4명. '야구천재' 이종범이 외야수 부문에서 2개의 황금장갑을 추가했고, '수비의 선

달인' 김종국과 '100타점 신화'의 유격수 흥세완 그리고 '날쌘돌이' 이용규가 외야수 부문에서 각각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투수 윤석민이 평균자책점 2.33에 등극하며 최우수선수에 도전했지만 아직 MVP 수상자는 프로야구 중심에 서 있었다.

1983.84.86.87년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수에서 코치로 태이거즈의 명맥을 잇고 있는 김종모 KIA 수석코치는 'FA(자유계약선수)도입과 선수들의 달라진 체격이 프로야구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코치는 'FA는 선수 개인의 발전은 물론 야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일부 선수들이 FA를 최후의 목표로 삼아 부상을 숨기며 운동을 하면서 팀 전력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수들의 체격이 좋아지면서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과 장타자들의 수가 증가해 한국 야구가 한층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재능있는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해 발전 된 야구 문화와 기술을 배워온 것도 국내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수석코치는 '젊은 선수들이 체격에 비해 체력이 부족하다'며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최고의 선

수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왕년의 스타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 수석코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방망이로부터 글러브구입까지 선수들의 뒷이었고, 비가 오면 운동장이 눈바닥이 돼 미끄러지, 풍뎅이가 나오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야구를 했다'며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낭비해 밤을 세워가며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선수들의 일상이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986년 한국시리즈에 총 출중했던 태이거즈 영광의 얼굴들 선동열, 장재근, 김성한, 김봉연, 이현근, 이들은 전통을 잊고 있다. 지난 4월4일, 두산 베어스와의 2009년 즐거운 개막전에 윤석민을 대표로 김상훈, 장성호, 김종국, 이현근, 김선빈, 나지완, 이용규, 이종범, 최희섭 등 후辈 호랑이들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타선의 중심 장성호와 이용규가 부상으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 있지만 '투수 왕국'으로 군림하던 옛 시절과 견주어 손색 없는 윤석민-양현종-구름-서재웅-로페즈-곽정철의 선발진과 24년만의 신인왕을 한 '무서운 신인' 안치홍의 폐기 넘치는 플레이를 새로 장착한 KIA는 또 다른 가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여율기자 wool@kangju.co.kr